

요한 계시록 3:14-21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1. 풍족함의 올무

사탄의 올무 중 하나는 풍족함의 올무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제 3 세계 나라들의 국민들에 비하여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왜 비참하고 가련합니까? 우리가 아직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지 못하니 가난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시력을 갖지 못하니 눈 먼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여 주 예수님의 구원 안에 새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이니 아직 의의 옷을 입지 못하여 벌거벗은 상태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입에서 토해 버리고 싶은, 혐오스런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의의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며, 눈에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게 되기를 책망하시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풍족하여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혐오스러운 영적 상태에 있다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19 절)” 주님이 비쳐주시는 빛으로 자신을 참되게 바라보고 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리로 옮겨 가야 하겠습니다.

2.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단련하여 정제하시기 원하십니다 (19 절). 에집트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 년간 단련시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점유하기 위한 훈련된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질서와 기강,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 대한 순종심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을 단련하여 순금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8:10]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왜 금을 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금 안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금과 같은 귀한 성품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집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만심, 나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탐욕, 세상을 향한 끝없는 허영,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 문화 등등, 소위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버려져야만 하는 많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우리이기에 불로 정제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제의 경험, 단련하시는 경험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심으로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도가 그 경험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6-7]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단련과 정제의 경험을 당하면 “불순한” 감정과 태도가 표출됩니다. 그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내가 겪은 어려움이 타인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웃에게 근거 없이 험한 말을 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못된 태도, 때로는 격한 감정의 기복이나 심지어는 광적인 부르짖음과 병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며, 이는 단순히 제거되어야 우리의 금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끌어 앉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제와 단련의 경험을 당하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이며, 자신의 외면으로 표출되는 불순물 같은 감정과 태도를 과감히 버려버림으로써 순전한 금을 사서 참된 부요함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3.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과 ‘흰 예복’은 계시록에만 5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번째로 오늘 본문, 즉 3 장 18 절에 ‘흰 옷 [white robe]’으로 표현되어 있고, 6 장과 7 장에는 ‘흰 예복 [white raiment]’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별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사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러나, 6 장에 언급된 흰 예복은 자신들의 증거로 인해 이생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흰 예복’으로서 [6: 9-11],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순교한 성도들은 흰 예복을 자신들이 스스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흰 예복을 입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계시록 7 장 9 절에서 보이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14 절에 기록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한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생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거치는 동안 입고 있던 예복, 즉 그리스도의 신앙이 더럽혀 졌지만 그것을 어린 양의 피의 효능으로 희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늘에서 흰 예복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댓가는 그 남녀 죄인들이 지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 중 동물 몇 마리를 죽여서 마련하신 것으로, 댓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3 장 18 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들 스스로 흰 옷을 사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흰 옷을 세상의 어떤 쇼핑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희게한 옷만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해야 할 댓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인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옷은 더 이상 ‘흰 옷’이 아니므로 주님이 주시는 ‘흰 예복’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로 세척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이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큰 무리는 ‘모두’ 자신의 예복을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온전히 세척하여 온전히 희게 된 ‘흰 예복’을 입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가려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옷을 주님의 보혈에 세척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불하는 댓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옷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상태를 덮어 주어 우리의 부족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 눈에 안약을 바르라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3:19].”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시력을 잃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약을 발라 시력을 회복하여 바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나빠지거나 상실되면 마태복음 7 장 3 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신의 눈에 들어 있는 커다란 들보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한 결함을 보는 어리석은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들보는 무엇을 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남을 보는 눈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방해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라오디에아 교인들은 풍족함의 울무가 바로 그런 방해물이었습니다.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단지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통해 잠깐 접하는 존재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들도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다만 주식 시장의 흐름을 잘 이용하여 나의 부를 증가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해하지 않으면 미소짓고 지내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고통이나 핍절한 상태는 내가 깊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9 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님의 눈에 자신의 침을 뱉어 만든 진흙 덩이를 발라 주심으로써 그가 시력을 갖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빛이신 주님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 온전한 시력을 주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시력을 가졌으나 영적인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님처럼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믿고 도움을 구한다면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며, 주님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과 자신, 진리와 세상, 그리고 이웃을 주님의 시력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주님에 의하여 올바르게 인도받아 넘어지지 않으면서 바로 걷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게으름, 나를 남보다 낮게 보는 거만함, 나의 부족한 상태로 회개하기 보다 세상과 남을 비판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의 진리를 나 혼자만 바로 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회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불순물을 다 버리고 사탄의 울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정제된 순금을 사서 가슴 속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희게 된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있는 큰 편견과 잘못된 시력을 지금 내어 버리오니 하나님의 시력으로 바로 보고 진리의 길에서 올바르게 걷는 기적을 저희 생활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